
碩士學位論文

中等學校 統一教育의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康 丁 允

1998年 8月

中等學校 統一教育의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康 丁 允



康丁允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 정 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고 성 준

통일은 우리가 실현해야 할 민족 최대의 과제이다. 통일교육은 그러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적어도 우리는 통일 및 통일교육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하나의 합의를 이루며 살아 왔다. 하지만 그러한 통일 및 통일교육의 방법을 둘러싸고 남북한간에 그리고 대내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통일을 지체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범해 왔다.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대내적인 시각 차이는 명확한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 대한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오늘날 우리가 통일교육을 중시해야 할 주된 이유는 통일교육이 통일이라는 현실적이고도 당위적인 민족적 과제 해결에 있어서 통일의 주역이 될 새 세대들에게 확고한 민족애와 통일관을 심어주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일교육이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온갖 고통과 갈등, 그리고 혼란의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바람직한 통일문화를 창조하는데 역할을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교육 특히 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입시위주의 주지주의적 교육풍토 속에서 명확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지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이 급변하고 있는 통일환경의 동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채, 늘 시대 변화를 뒤쫓아가는 낡은 방식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유동적인 통일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통일교육은 불신과 대립의 냉전 구조 속에서 반세기를 살아온 우리 민족 전체의 마음 속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탄력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으로서 ①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 ② 민주 시민을 기르는 교육, ③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교육, ④ 적극적인 평화 의식을 계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 부응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열린' 교수·학습 방법으로 시청각 매체 활용 수업, 토의 수업, 시사 자료 활용 수업, 가상현실 체험학습, 현장 체험 학습 등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실행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학교 통일교육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실질적인 마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파급 효과가 큰 확실한 교육적 투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통일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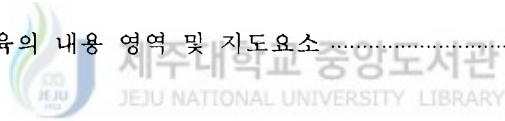
※ 본 논문은 199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目 次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2
II. 통일교육과 통일 환경의 변화	4
1. 통일교육의 의의	4
1) 통일교육의 의미	4
2) 통일교육의 목적	5
3) 통일교육의 기능	6
2.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	10
3. 통일환경의 변화	12
4.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13
III.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6
1.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16
1) 일반 목표	16
2) 학교급(학년)별 목표 체계	19
2. 통일교육의 내용 구성	21
3. 제주도 도덕·윤리교사들의 통일 의식	25
4.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32
IV.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35
1.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35
2. 민족 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의 내용	39
3. 통일교육의 새로운 교수방법	41
V. 결 론	47
참고문헌	49
Abstract	52
<부록> 제주도 도덕·윤리교사들의 통일의식 설문조사	54

표 목 차

<표-1> 학교통일교육의 목표	17
<표-2> 중고교 도덕/윤리과 일반목표	18
<표-3> 학교통일교육의 일반목표	18
<표-4> 도덕/윤리과 각 학년별 국가, 민족생활의 주안점	20
<표-5> 통일교육의 학교급별, 학년별 목표체계	21
<표-6> 기존의 통일교육 내용체계	22
<표-7> 통일교육의 내용 영역 및 지도요소	2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5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이어왔고, 근 1300년 동안 하나의 민족국가로서 삶을 유지해 온 우리 겨레가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이념과 체제 가운데 반세기가 넘는다. 이러한 분단의 장기화 속에서 민족간의 반목, 불신, 적대관계, 민족 이질화 등으로 민족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남북 통일을 현실 가능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국내외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보인다. 통일교육은 그러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적어도 우리는 통일 및 통일교육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하나의 합의를 이루며 살아 왔다. 하지만 그러한 통일 및 통일교육의 방법을 둘러싸고 남북한간에 그리고 대내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통일을 지체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범해 왔다.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대내적인 시각 차이는 명확한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 대한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오늘날 우리가 통일교육을 중시해야 할 주된 이유는 통일이라는 현실적이고도 당위적인 민족적 과제 해결에 있어서 통일의 주역이 될 새 세대들에게 바람직한 통일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온갖 고통과 갈등, 그리고 혼란의 요소들에 대해 미리 새 세대들에게 이해를 시켜 바람직한 통일문화를 창조하는데 통일교육의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교육 특히 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입시위주의 주지주의적 교육풍토 속에서 명확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데 학생들의 지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이 급변하고 있는 통일환경의 동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채, 늘 시대 변화를 뒤쫓아가는 낡은 방식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학교 통일교육은 어떤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일교육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유동적인 통일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중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일환경의 변화에 알맞은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목표와 내용체계 및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냉전 이후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한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문헌들과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를 재정립하고, 특히 중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헌연구법을 활용할 것이며, 한편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윤리교사들의 통일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설문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문 II장에서는 통일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통일 환경의 변화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 분석과 그에 따른 통일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여러 차원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기존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과 변화된 통일환경에 따른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방향도 함께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구성과 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도덕·윤리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재평

가를 분석하여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일환경의 변화에 알맞은 통일교육의 교수·학습방법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및 민족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열린' 교육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등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장 결론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며,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통일교육과 통일 환경의 변화

1. 통일교육의 의의

1) 통일교육의 의미

통일교육이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힘겨 다루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 그리고 통일 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가르쳐서 모든 국민이 균형 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며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¹⁾

새로운 통일교육의 개념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통일여건 변화 및 방안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는 통일대비교육과 통일이후교육의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1) 統一對備教育 : 통일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교육으로서 평화공존시대를 거쳐 통일을 이룰 때까지의 범국민적 교육이다. 지금으로서는 국제정세의 변화 및 남북한간의 합의서에 담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태도, 사고, 가치관, 행동규범 등을 국민들에게 습득케 하는 학교 및 시민교육이다.

(2) 統一以後教育 : 통일을 이룩한 이후 통일국가를 완성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화에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 태도, 가치관, 의식, 사고, 행동규범 등을 국민들에

1) 통일원(1995), 「통일교육 기본방향」, p.4.

게 이해시키고 습득케 하는 학교 및 시민교육이다.²⁾

2) 통일 교육의 목적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자주적·민주적·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인 이해 기반의 확충과 함께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 창출을 위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건전한 행위규범을 온 국민들이 갖도록 하는데 있다.

둘째, 통일조국의 형성과정과 장차 통일조국이 경험하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식과 대응 능력을 신장함에 있다.

셋째, 세계 속의 새로운 통일조국 및 한민족의 위상과 세계 발전을 위한 한민족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남북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서 국민들 간에는 다양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분단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6·25 전쟁을 겪은 기성세대와 그렇지 못한 젊은 세대 사이에 시각의 차이는 크다. 또 지향하는 세계관과 이념에 따라 통일의식의 방향도 다르다. 통일교육은 각계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융화시키고 합리적인 귀일점을 발견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민족 통일의 새로운 발판을 구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은 모든 교육기관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하되,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 교육은 그 대상이 어느 세대에 속하고 어떤 이념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있다. 아울러 통일교육은 그런 통일을 하루 속히 이루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라는 사명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제반 상황에 대응하

2) 백종억(1992),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 방향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p.200.

여 국민은 각자 민족의 성원으로서 폭넓은 인식과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적 삶과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³⁾

3) 통일교육의 기능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능력 배양, 체제역량 강화, 통일 문화 창조, 체제 융합 등의 기능을 해야 한다.

(1) 개인 능력의 배양

개인 능력 배양은 통일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남북통일 문제는 한민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의 목표나 방법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은 어느 개인이나 계층, 그리고 특정한 계급이나 정권에 의해 전횡되어서는 안 된다.⁴⁾

장차 남북한의 실질적인 교류·협력과 기능주의적인 통합의 단계가 구체화되면, 중요한 통일정책이나 국가의 미래상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결국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또한 이질적인 체제하에서 자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날 갈등과 사회문제도 남북한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통일비용도 국민의 협동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민주시민 능력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사이에서 통일에 관해 생기는 갈등과 긴장을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북한 또는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 방법과 절차 및 규범을 이해시키고, 여러 사람들과 합의를 창출하는 방식을 알게 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3) 통일원(1995), 전게서, pp. 4-6.

4) 통일원(1995), 상게서, p.149.

전체의 문제해결력의 수준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 개개인이 통일 주체자로서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2) 체제 역량의 강화

통일교육은 체제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은 그 당위성이나 이상적인 원칙의 제시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통일은 40여 년 동안 이질적인 체제의 대립과 경쟁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체제가 성취한 바에 충분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는 정권이 수립되어야 통일 논의가 진지해 질 수 있다.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통일비용 등 각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체제의 可動力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체제역량이란 체제가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체제 자체의 질서를 유지하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체제를 확장하거나 변환을 할 수 있는 체제 轉換能力이 있고, 이를 이한 체제 자체적인 지지 산출 극대화 와 환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⁵⁾

남북한의 통일이 이질적인 체제간의 통합이라면 이러한 체제 역량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기능주의적 통합방식으로 체제간의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분에서 다른 체제의 요소보다 능력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통합이 진행되어 분기점(bifurcation point)을 넘게 되면서 나타나는 통합 과정의 통일 비용 해결을 위해서는 체제 역량의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체제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은 우선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擴散支持를 증대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지의 확보는 체제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다음으로 체제역량의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이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는 상상

5) 윤건영(1995),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 준거설정 에 관한 연구", 『'95북한 및 통일연구논문집(VI):통일환경 및 통일교육분야』, 통일원, p.295.

을 초월하는 인적, 물질 통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국가의 경제력이다. 경제력 향상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것이 체제의 안정을 가져오기도 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富의 편중을 지양하고 형평성 제고를 통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등 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통일 이후 발생할 실업 문제, 경제 인구 이동 등의 경제적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통일기금을 확충하는 한편, 통일을 대비한 사회간접시설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

통일 문제에 대한 여론 유도과 여론 수렴도 체제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합하고, 합리적인 귀일점을 발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민족 통일의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

(3) 통일문화의 창조

통일교육은 통일 문화를 창조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는 자본주의 문화와 공산주의문화로 대립되어 있다. 현재 남북한은 지난 50여 년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이루어 놓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분단 문화'의 소산이 깔려 있다. '통일 문화'라는 개념은 이러한 분단 문화를 극복하고 남북을 통일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문화란 통일 문제에 대한 가치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일 지향적인 가치관 및 그러한 의식과 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통일문화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습득해야 될 지식, 신념, 도덕, 법, 습관 등 무형의 모든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통일 문화는 반만년의 민족 고유 문화의 단순 재현이 아니라 통일의 관점에서 남북한의 이질화된 문화를 '민족주의'와 결합시켜 새롭게 창조한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감정·태도·가치관·인지적 대응 일체를 포함하는 것이다.⁶⁾

6) 최인화(1993),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전개방향", 「통일문제연구」 제3권 제1호, 통일원, p.385.

통일 문화적 접근은 통일 문제를 분단 현실의 틀 속에서만 한정시켜 보지 않고 민족사의 당위적 관점에서 왜곡된 분단의 현실을 바로잡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치, 군사적 및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일단 상대화시켜 민족의 통합과 민족 문화의 창조하는 근원적인 시각에서 분단 현실을 재조명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문화적, 사상적 기반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통일 문화적 접근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국민의 의지와 에너지를 동원하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기능, 통일논의와 국가정책을 수렴하는 지도 이념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통일을 위한 제반 노력의 내용과 성격 및 그 방향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 문화는 민족사적 문화 전통에 근거하여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민족적 동질성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연결고리이며, 통일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다. 또한 민족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질적인 문화를 사전에 형성할 수 있는 단계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안되며, 이 때문에 통일교육에서 통일 문화의 창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4) 체제 융합의 기능

통일교육은 체제를 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통일은 일차적으로 정치·경제체제와 사회 구조의 통합이지만 특히 체제와 구조의 통합은 의식과 가치관의 융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의식과 가치관의 융합은 이질화된 사고 방식 및 언어, 생활 양식, 문화, 교육 등 상호 동질성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 이후 독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진통은 체제변혁에 따른 개개인의 인간 변혁을 이루는 문제이다. 동서독인들이 동일한 생활관, 가치관을 가진 민족으로 융합할 때까지는 2세대가 걸릴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 말하는 체제 융합의 의미는 남북한이 통합이 되어서도 갈등이나 이질감에 의한 사회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분단상태에서 보다 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한 제도나 구조의 통합만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까지도 이질감을 극

복하고 연대의식을 형성하여 더욱 살기 좋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체제 융합의 문제가 통일교육에서 추진되는 것은 현재의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남북한의 인적 왕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각종 사회 문화적 교류가 진행되면서 상호 화해와 협력이 증진되어 남북 통합의 단계가 성숙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될 문제이다. 통일 후의 독일에서 이러한 융합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단순히 인위적인 두 체제의 통합은 오히려 갈등과 사회 문제만을 증폭시킨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네 가지 관점의 기능을 수행할 통일교육은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능력배양과 체제 역량 강화는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 통일 문화 창조 기능은 통일을 촉진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매개변수, 체제 융합 기능은 통합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는 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⁷⁾

2. 통일 교육의 변천 과정

통일교육의 재정립 방향을 모색하기 전에 먼저 분단 이후 통일교육이 어떤 과정으로 변천하여 왔는가를 개관하여 보고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은 분단 이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리 변화하여 왔으나 해방 이후부터 1980년 중반까지의 반공교육과 그 이후의 통일안보교육, 그리고 90년대의 통일교육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1) 반공교육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교육방침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反共으로 일관해 왔으며 이러한 반공의 기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강도를 달리하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반공교육은 남북분단과 6·25 전쟁 이후의 국민결속과 정권 유지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7) 윤건영(1995), 전계서, pp.294-298.

과거 반공교육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국민들의 반공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적절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둘째, 반공교육에서 대북 경계심과 통일의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셋째, 북한과 공산권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의 변화양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넷째, 너무 현실문제에 집착한 결과 과정상의 문제를 소홀히 하였으며, 북한의 실체를 도외시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였다.

이렇듯 반공교육은 북한의 전체적인 부정과 남한의 전체적인 긍정이라는 이분법적이고 흑백 논리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극단적 적대의식을 고취시켰다. 여기에는 이해와 화해, 협력과 포용, 공존과 통합 같은 내용이 있을 자리는 없다. 이러한 교육은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한과 북한이 분단 국가로서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조를 공고히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반공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가능조건을 만들어주며,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은 아니었다.⁸⁾

(2) 통일안보교육

1980년대 중반 이후 통일 논의가 다양화되고 반공의 시대적·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됨에 따라 반공교육의 개선요구가 크게 증대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의 반공교육 일색에서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통일과 안보라는 정치와 교육의 두 큰 규범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통일 논의에서 일종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공과 통일은 사실상 모순 개념이었다. 적대감과 증오심의 조장이 도덕 교육의 한계로 작용하면서 효과적인 도덕 교육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제 5차 교육과정 개편을 기하여 통일교육의 방향은 반공교육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전환되었다.

통일안보교육에서는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반공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

8) 오인택(1997), "통일교육의 방향", 이영선 편,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총서3 「통일준비」, 으뜸사, pp.141-142.

적 편향성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同族으로서의 북한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⁹⁾ 공산주의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민주시민 정신의 고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삼았다.¹⁰⁾

통일, 안보 교육은 기존 반공교육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을 제안하였으나 그러한 취지가 완전히 달성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의 이중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변화된 통일 환경을 수용하는데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3) 통일교육

통일안보교육은 적극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북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유화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과 의식을 배양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일종의 소극적 통일교육이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적극적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명칭도 통일안보교육에서 안보라는 말을 제거한 통일교육으로 바꾸었다. 통일교육은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며 준비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었다. 북한을 협력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형제로 강조하면서 남북한의 한 민족 공동체됨을 강조하였다. 통일교육의 목표도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3. 통일환경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및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은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통일교육도 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9) 백종억(1992), 전게서, pp.197-198.

10) 오인택(1997), 전게서, p.142.

첫째, 국제적 상황의 변화로는 주변국들이 탈냉전 질서에 입각하여 국가 이익 우선의 對한반도 정책을 추진하여, 한반도 냉전체제를 도외시한 현상고착의 대북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북한은 김일성 사망 후 체제 결속을 위해 정치사상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즉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제이완현상 방지를 위해 정치사상교육은 계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대남 적화전략 수행 차원에서 친북 혁명세력의 확산 및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국론분열을 부추겨 정책추진역량 약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우리 내부의 상황으로 체제수호 이데올로기 교육을 정권안보교육으로 왜곡하여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왔으며, 반면에 친북적·反자유주의적 논리를 진보적인 것으로 왜곡하는 경향과 자유 민주주의 이념교육의 위상이 현저히 약화되는 등 자유 민주주의체제 수호에 대한 체계적 교육여건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 사이에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냉전지대임을 간과하는 안보경시 현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독일 통일 이후 통일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대되는 등 통일 추진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¹⁾

4.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김영삼 정부의 출범 초기 상황은 소련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냉전시대의 도래, 노태우 정부 시절 이룩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그리고 한국 경제의 우호적인 조건과 북한의 경제난 심화 등 모든 면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룩할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대북 안보 문제의 정치적 이용과 비현실적 정책 추진 및 통일 안보 정책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의 부재 등 정책적 일관성의 부재로 말미암아 남북관계의 극단적 경색은 물론이고 통일외교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고 이제 통일 안보 정책의 짐은 새로운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11) 통일원(1997), 「통일교육지원법 설명자료」, 통일원.

이제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국제화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냉전적 사고로는 복합적인 현실을 갈파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주의적 통일 개념보다는 현실주의적 공존 개념이 통일 전략의 핵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명분론적 통일 방안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난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통일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점진적 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필히 남북간의 공존공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평화정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화공존정책은 북한을 관리해 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붕괴성을 제어해내면서 위기 관리를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¹²⁾

새롭게 출발한 김대중 정부는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즉, 현 단계에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보다 평화정책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정착의 기반 위에서 남북한간에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 정부는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통일 배제, ③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대북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대북 정책의 추진기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안보와 협력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즉,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일은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 바탕으로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체제의 강화 등 주변국가들과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확히 하고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남북한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 지향적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12) 최 성(1998), “김대중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추진방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2월호.

셋째,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북한체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남북한의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여기서 말하는 남북한의 상호이익이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 민족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상호 보완성에 기초하여 경제공동체의 통일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를 확보한다.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나, 새 정부는 남북간 문제를 남북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입각,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꾸준히 설득한다. 동시에 진행중인 4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섯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 새 정부는 소수 특정인이 밀실에서 대북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식기구가 아닌 비선조직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다. 즉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획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대북 정책의 목표와 원칙, 그리고 추진기조를 바탕으로 ①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②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③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 ④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의 탄력적 제공, 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⑥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로서 경수로 건설, 4자회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등을 통해 이미 주변국 및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정부는 동시에 4자회담 등을 활용하여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¹³⁾

Ⅲ.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학교 통일교육의 명료한 목표 설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첫째, 오늘날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널리 퍼져있는 민족 통일에 대한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풍토를 타파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명료한 목표 설정을 통한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환상적이지 않고 현실감 있는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료한 목표의 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 수렴 및 교육의 확고한 방향 제시를 위해서도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명료한 목표의 제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¹⁴⁾

다음에서는 학교 교육 전반에서 추구해야 할 통일교육의 일반 목표와 학교급 및 학년을 고려한 목표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일반 목표



학교 교육 전반에서 추구해야 할 통일교육의 일반 목표의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통일교육 지도 자료에 제시된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를 검토해 보고, 통일교육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덕·윤리과의 교과 목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로 한다.

(1) 기존의 통일교육 목표

-
- 13) 양영식(1998), “새 정부의 대북 정책 : 추진방향과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세미나, 「오늘의 북한과 민족통일의 과제」, pp. 6-10.
14) 한국교육개발원(1996), 「학교통일교육자료개발연구」, p.13.

기존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¹⁵⁾

<표-1> 학교통일교육의 목표

- | |
|--|
| ㉑ 민주주의 의식, 민주적 태도와 심성의 함양 |
| ㉒ 통일의 당위성 인식, 통일을 위한 의지 고취 |
| ㉓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공산주의체제와 비교, 남북 사회 비교) |
| ㉔ 통일의 조건과 장애 요소, 통일의 절차와 방안에 대한 이해 |
| ㉕ 통일 후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 통일 후 국가 양태에 대한 신념 |

이러한 기존의 통일교육 목표는 현시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통일교육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통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바람직한 성향에 대한 서술이 요청된다. 둘째, 제시되어 있는 일부 내용은 통일교육의 목표로서 부각시키기에 부적절하다. 예컨대, 체제 비교 및 우월성 인식 등은 통일교육 목표로서 부각시키기에 부적절하다. 셋째, 학교급별로 목표를 구분하고 있는데, 불충분하다.

(2) 도덕·윤리과의 목표

제 6차 중학교 도덕·윤리과 교육과정¹⁶⁾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목표 중 통일교육 관련 부분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15) 통일원(1995), 전계서, p.152.

16) 교육부(1992), 「제6차중학교 교육과정」과 「제6차고등학교 교육과정」 참조.

<표-2> 중고교 도덕/윤리과 일반목표

학교급	도덕 · 윤리과의 교과 목표 및 국가, 민족 생활 영역 목표
중학교	국가 · 민족 · 문화를 사랑하고, 국토와 민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의 통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과 통일 국가의 실현 의지를 가지게 한다.
고등학교	통일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이해하고, 통일 과업의 달성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굳은 의지를 기르게 한다.

이 표에 제시된 도덕 · 윤리과의 교과 목표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민족 생활 영역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통일교육의 목표 설정에 참고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도덕 · 윤리과의 목표를 보면, 남북한의 현실, 통일 과제 등을 인식하고 통일의지와 공동체 의식을 갖고, 통일을 달성키 위한 굳은 의지를 갖게 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3) 통일교육의 일반 목표 설정

이상과 같은 앞장에서 살펴 본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향을 토대로 학교 통일교육의 일반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3> 학교통일교육의 일반목표

학교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현실, 통일의 과정, 통일 상황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습득하도록 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도록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에는 두 가지 차원의 지도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내용 차원에서는 크게 보아 '북한의 현실과 남북한의 비교', '통일교육의 이해', '통일 상황 전망'과 '통일 사회에의 적응'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통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성향의 차원에서는 지식, 가치 판단 능력 등의 인지적 요소, 그리고 '통일

의지', '통일 준비', '통일 이후 대비'와 같은 정의적 태도 및 통일을 실현시키려는 실천 동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 마디로, 학교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된 민족 국가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

2) 학교급(학년)별 목표 체계

위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일반 목표는 전 학교급 및 전 학년을 통해서 일관되게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감안해 볼 때, 학교급 및 학년별로 강조점에 차이를 두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학교급 및 학년별 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도덕·윤리과의 국가, 민족 생활 영역의 주안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다음 표에 나타난 학년별 주안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학년이 낮을수록 통일의지와 같은 정의적 성향에 강조를 두고, 학년이 높을수록 통일과 관련된 사실 인식, 가치 판단 능력 형성 등과 같은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학년이 낮을수록 민족동질성, 통일의 미래상과 같은 통합적인 주제들에 강조를 두고 학년이 높을수록 북한의 현실, 통일 국가 실현 방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강조를 두고 있다. 셋째, 학년이 낮을수록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내용에 강조를 두고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내용을 다루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표-4> 도덕/윤리과 각 학년별 국가, 민족생활의 주안점

학교급	학년	국가·민족 생활 영역의 주안점
중학교	1	국가와 민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을 밝혀봄으로써, 국가·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헌신적으로 앞장서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민족 분단의 현실과 통일 과제를 알고, 이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현실, 남북한의 통일 정책, 민족 통일의 당면 과제 등을 연구하여, 통일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국가의 실현 방안을 생각해 보고, 이를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의 위상을 높이며,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고등학교	전학년	윤리과 일반 목표와 동일

이와 같은 도덕·윤리과의 학년별 국가, 민족 생활 영역 지도의 주안점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통일교육의 학교급별, 학년별 목표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학교급별, 학년별 목표 체계를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5> 통일교육의 학교급별, 학년별 목표체계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실 인식, 남북한의 통일 정책 알기 ○ 통일의 실현 방안 모색, 통일 국가의 번영을 위한 자세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국가 실현을 위한 조건 인식, 통일을 위한 노력 ○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자세

2. 통일교육의 내용 구성

현시점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려면 교육 내용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교육 내용 변화의 핵심은 보다 통일 지향적인 내용으로 보완하는 것이며,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의 통일교육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17) 교육부(1993), 「통일교육지도자료」, pp.26-28.

<표-6> 기존의 통일교육 내용체계

㉠ 분단의 현실
○ 분단의 배경과 과정
○ 남북한 체제의 비교 및 현실
○ 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
㉡ 통일의 준비
○ 통일의 당위성(필요성)과 의미
○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통일 여건의 변화)
○ 통일 논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 통일 이후의 대비
○ 통일 조국의 미래상과 그 조건
○ 통일 국가 형성의 과정과 그 과제
○ 통일 국가에 대한 대비

이러한 통일교육 내용 체계는 현시점에서 통일교육의 상황 및 여건의 변화와 관련지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을 비판하기 위한 남북한 체제 비교나 분단의 현실 파악이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 현실의 이해'가 절실히 요청된다. 둘째, '통일의 준비'라는 영역은 그 개념이 매우 불분명하다. 따라서 보다 명료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의 설정이 요청된다. 셋째, 통일 이후에 대비하여 사회 통합 문제의 영역을 보충해야 한다.

한편, 최근에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내용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통일 전후'라는 시점에 따른 내용의 구성이 제시되고 있다. 곧 '통일 전 :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 '통일 후 :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이라는 구상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에서는 민족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부각시켜 지도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대비하는 교육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공동체로서의 통일 사회에 적응하고 민족의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구상은 상당히 시기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한 기존의 통일교육의 내용 영역 및 지도 요소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7> 통일교육의 내용 영역 및 지도요소

1. 북한의 현실 인식 및 남북한 비교
 - 1-1. 분단의 배경과 과정
 - 1-1-1. 분단의 배경
 - 1-1-2. 남북대립의 심화과정
 - 1-2. 북한의 현실과 남북한 비교
 - 1-2-1. 북한 사회의 특징과 현실 : 자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 1-2-2. 북한 주민의 생활상 : 가정, 직장, 경제생활
 - 1-2-3. 남북한 주민 생활의 비교
 - 1-3. 북한 청소년과 남북한 비교
 - 1-3-1. 북한 청소년의 생활 : 가정, 학교, 단체 생활
 - 1-3-2. 남북한 청소년 생활 비교
 - 1-4. 민족의 동질성 인식
 - 1-4-1. 민족의 역사와 전통
 - 1-4-2. 남북한 문화적 차이와 동질성
2. 통일을 위한 과정
 - 2-1. 통일의 필요성 인식
 - 2-1-1. 민족 분단의 문제점 인식
 - 2-1-2. 통일의 필요성 인식
 - 2-2. 통일을 위한 노력
 - 2-2-1. 남북한의 통일 노력과 문제점
 - 2-2-2. 남북 교류의 과정과 전망
 - 2-3. 통일의 여건 인식
 - 2-3-1.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
 - 2-3-2. 남북관계의 변화
 - 2-3-3. 통일 논의에 대한 태도
 - 2-4. 국가 안보 상황의 인식
 - 2-4-1.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 2-4-2. 한반도 주변 상황과 평화 정착의 필요성 인식
3. 통일 사회에의 적응
 - 3-1. 통일 후의 사회 상황 전망
 - 3-1-1. 통일 과정의 사회 혼란과 갈등 양상
 - 3-1-2. 남북한 사회의 상호 이해와 협력 추구 필요성
 - 3-2. 남북한의 사회 통합과 적응
 - 3-2-1. 정치, 경제, 사회 통합과 적응
 - 3-2-2. 사회적 다양성의 존중과 공존
 - 3-3. 통일 국가의 미래상
 - 3-3-1. 통일 국가의 모습과 조건
 - 3-3-2. 통일 국가의 미래상
 - 3-4. 통일 사회의 준비
 - 3-4-1.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의 과제
 - 3-4-2. 남북 주민 상호간의 인식 차이 극복
 - 3-4-3. 해외 동포의 민족 정체성 확립

3. 제주도 도덕·윤리교사들의 통일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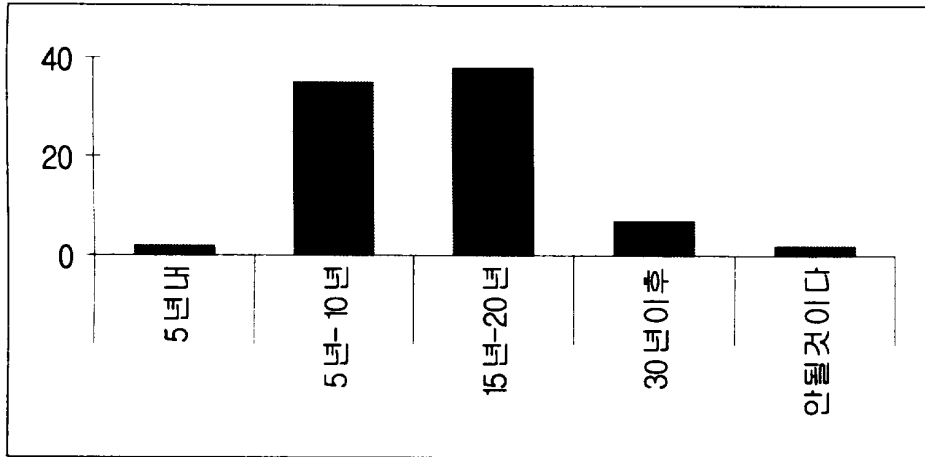
통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도덕·윤리 담당 교사들이 통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해 보았다. 간단한 설문 조사였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의식을 가늠해 보는 나름의 의의가 있었다.

(1) 교사 절대 다수가 통일을 원하며, 민족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

<문> 선생님께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80명
②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상관없다	4명
③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	0명
<문> 통일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한 핏줄, 한 민족이므로	39명
② 민족 경제적으로 이익이므로	12명
③ 민족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29명
④ 개인적으로 통일이 이익이 되므로	0명
⑤ 기타	4명

설문 조사에 응답한 84명중 80명(95.2%)이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통일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상관없다는 대답도 4명이 응답했다. 그러나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에는 응답한 교사가 없었다. 통일을 원하는 이유로 39명(46.4%)이 한 핏줄, 한 민족이므로, 29명(34.5%)이 민족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로 보아 통일 담당 교사들은 통일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의 문제에 대하여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2) 교사들은 2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교사들의 42%가 10년 이내에, 45%가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통일을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통일 한국의 체제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

〈문〉 선생님께서는 통일이 된다면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58명
②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0명
③ 남한과 북한체제가 모두 변하여 제3의 체제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방식	20명
④ 기타	6명

통일 한국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의 교사들(69%)이 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체제가 모두 변하여 제 3의 체제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견해도 23.8%나 되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통일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강한 신념과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민족 통일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북한 당국, 한반도 주변 강국의 전략, 통일을 원하지 않는 보수 세력을 지적하고 있다.

<p><문> 선생님께서는 민족의 통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①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	33명
② 한반도 주변 강국의 전략	22명
③ 남한 당국의 대북 전략	2명
④ 통일을 원하지 않는 보수 세력	16명
⑤ 일반 국민 및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6명
⑥ 기타	5명

통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북한 당국의 적화 통일 전략 (39.3%), 한반도 주변 강국의 전략(26.2%), 통일을 원하지 않는 보수 세력(19.1%) 순으로 꼽았다. 교사들은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과 주변 강대국들의 대한반도 전략, 그리고 보수 세력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5) 김대중 정부의 통일 안보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대강은 알고 있다.

<p><문>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통일안보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p>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6명
② 대강 알고 있다	39명
③ 보통이다	16명
④ 잘 모른다	19명
⑤ 전혀 모른다	4명

도덕·윤리 담당 교사들은 새 정부의 통일 안보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응답

자의 46.4%가 대강은 알고 있으나, 아주 잘 아는 경우가 7.1%, 보통이다가 19.1%, 잘 모른다는 22.6%, 전혀 모른다가 4.8%나 되어 통일 교육의 담당자로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교육 현장과의 연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6)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문화교류 및 이산 가족의 왕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문> 통일을 위해 남북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 교류 및 이산 가족의 왕래	59명
② 남북 경제 협력	11명
③ 남북 정치 회담	5명
④ 주변 열강과의 정치 회담	0명
⑤ 남북한 평화 체제의 구축	9명

통일을 위해 남북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 교류 및 이산 가족의 왕래(70.2%)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북 경제 협력(13.1%)과 남북한 평화 체제의 구축(10.7%)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7) 통일 교육에 대한 이해와 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통일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다(28.6%), 보통이다(69.1%)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는 매우 많다(19.1%), 많은 편이다(38.1%), 보통이다(36.9%) 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별로 없다라는 대답도 6%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통일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교육함에 있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명료한 지도방법을 지니지 못한 채 구태의연한 사실 전달이나 개념 설명 방식으로 통일교육에 임하고 있는 실

정이다.

<문> 선생님께서는 통일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24명
② 보통이다	58명
③ 잘 모른다	2명
④ 전혀 모른다	0명
<문> 선생님은 통일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많다	16명
② 많은 편이다	32명
③ 보통이다	31명
④ 별로 없다	5명
⑤ 전혀 없다	0명

(8) 담당 교과 영역에서 통일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통일교육의 경시 풍토를 꼽고 있다.

<문> 담당교과 영역에서 통일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적절하지 못해	18명
② 교육자료가 없거나 부실해서	21명
③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해 통일교육이 중시되지 않기 때문	29명
④ 수업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시간을 충분하게 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9명
⑤ 수업에서 통일교육을 할 때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좋지 않아서	7명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과를 가르치면서 통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해 통일교육이 중시되지 않기 때문(34.5%)이라고 보

고 있으며,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자료의 부실(25.0%)과 통일교육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적절하지 못해서(21.4%)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또한 수업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10.7%)과 통일에 관한 수업 내용이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좋지 못하다(8.3%)라는 대답도 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교사들은 통일교육을 위한 수업 방식으로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과 학생 주도의 발표 및 토의식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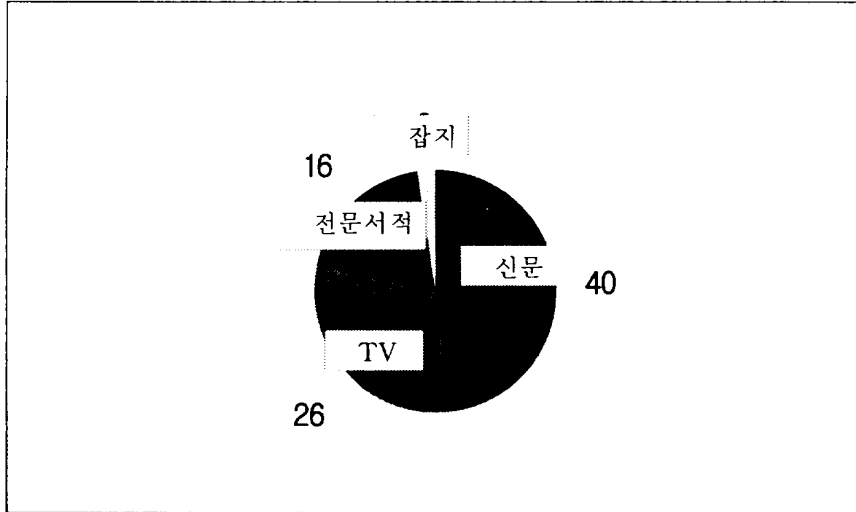
<p><문> 교과 수업에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칠 때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십니까?</p>	
①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	23명
② 학생 주도의 발표/토의식 수업	7명
③ ①, ②를 절충한 방식의 수업	42명
④ 역할극 수업	0명
⑤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	10명
⑥ 현장 체험 학습	2명

교과 수업에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칠 때 어떤 방식의 수업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과 학생 주도의 발표/토의식 수업을 병행한다는 대답이 50.0%가 되었고,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이 27.4%,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이 11.9%, 학생 주도의 발표/토의식 수업이 8.3%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아 아직까지는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수업 방안의 모색과 수업 자료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교사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주로 신문과 TV를 통해 얻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신문을 통해서 얻는다는 대답이 47.6%, TV를 통해 얻는다는 대답이 30.9%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 서적을 통해 얻는다는 대답은 19.1%에 불과하여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교사 연수의 기회 확대를 통한 통일교육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11)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에 주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 통일교육을 할 때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① 반공 안보 의식의 함양	0명	
②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	24명	
③ 민족 자주 의식의 함양	16명	
④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6명	
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함양	38명	

통일교육을 할 때 주력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거의 반수(45.2%)의 교사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함양을 들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28.6%), 민족 자주 의식의 함양(19.1%)도 중요한 분야로 꼽았다. 이것으로 보아 도덕·윤리 담당 교사들은 과거의 반공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관에서 벗어나 민족의 발전을 추구하는 통일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점에 중요성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입시위주의 교육 속에서,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통일에 무관심한 청소년, 학생들에게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언제 다가올지도 모를 통일에 대비하려면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앞장서서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은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통일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편협한 시각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교육전문가들은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 통일교육이 시대의 조류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이 이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¹⁸⁾

현재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도덕·윤리교사들의 통일 의식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⁹⁾

18) 고성효(199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20.

19) 통일원(1997), 「통일교육지원법 설명자료」, pp.6-7.

첫째, 제 6차 교육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 및 공산주의 이념비판 교육은 대폭 축소되거나 완전 삭제되었다. 즉 고등학교 「윤리」의 경우 이념교육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은 윤리교과에 할당된 총 96시간의 1/19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축소됨으로써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부족 내지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통일관련 부분이 교과서의 뒷부분에 편재되어 있는 문제이다. 중학교 「도덕」의 경우 전학년 과정 중 중학교 2학년 과정의 뒷부분에 편재되어 있어 학년말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심지어는 생략해 버리는 등 실제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윤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원에 편재되어 있어 3학년말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시를 위한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실질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로 통일 관련 학습 시간의 절대적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중학교의 경우는 총 16시간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총 8~10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넷째, 통일 문제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부족 문제이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자신도 통일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사들 자신도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로 통일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입시 경향에 맞추어 암기 위주의 수업 운영에 자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법의 통일교육은 주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교수학습 자료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시사자료나 각종 시청각 자료, 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전문가들의 양성과 함께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 교재, 교수기법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학교교육과정의 입시위주로 짜여진 교육환경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통일교육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타교과와는 달리 생활에 근간이 되는 교육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교육의 효과를 달성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시험대상 과목으로 제공하였다. 즉 학교에서 제공하는 통일 교육은 교육을 제공받는 학생들에게 이중적 부담을 지게 하였다. 학생들은 통일교육을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으로만 여기게 되었으며 실제로 다가올 통일에 대해 청소년세대로서 지각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²⁰⁾



20) 김도태·이경화(1997), “통일교육 개선방향 :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집』 제6권 제1호, 민족통일연구원, p.4.

IV.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1.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미래상과 통일국가의 이념의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두 요소를 고려하여 통일한국사회의 이념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1)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은 선동적인 구호나 맹목적인 열정에 의해 주어지는 것 혹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닌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관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각이요 체계화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통일관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바람직한 통일관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첫째, 올바른 통일관은 다음과 같은 지식(knowledge) 요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 ① 조국 분단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틀을 갖추고 있다; ②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임을 알고 있다; ③ 조국통일의 민족사적 당위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④ 북한의 실상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이해의 틀을 갖추고 있다.

둘째, 올바른 통일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skill) 요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 ① 남북한 체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상호 비교할 수 있으며, 양체제의 상호 보완과 수렴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② 통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통일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③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남북한 및 국제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④ 통일국가 형성의 과정 및 통일 이후에 직

면하게 될 많은 대내외적 과제들을 추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올바른 통일관은 다음과 같은 정의적(affective) 요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 ① 인간의 존엄성 및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편견과 적대감보다는 이해와 수용의 관용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다; ② 통일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균형 감각을 지니고 있다; ③ 감상주의적, 통일지상주의적, 맹목적 통일관을 경계하는 가운데, 한민족 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하나의 통일 국가 실현에 대한 열망과 의지 및 확실한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④ 편협한 민족애에 탐닉하는 것이 아닌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조화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넷째, 올바른 통일관은 다음과 같은 행동적(active) 요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 ① 민족 동질성 회복이 통일 촉진의 원동력임을 깨달아 일상 생활에서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신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일상 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규범과 법규를 존중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통일국가의 완성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④ 통일 논의의 실행 과정에 있어서 양보와 타협의 한계를 분명하게 실행할 수 있다.²¹⁾



(2)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의 대상은 범국민적이어야 하며 장차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통일조국의 한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학습자가 미래 사회에서 충분히 성숙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인간으로 육성되도록 교수·학습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²²⁾ 민주시민교육은 현재 통일 이전의 단계에서나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민

21) 추병완(1997),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통일교육·홍보(V)』, 통일원, pp.28-29.

22) 이경희(1996),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교육방안의 모색”, 『'96북한 및 통일연구논문집(II);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분야』, 통일원, p.57.

주주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이념, 자유의 이념, 복지의 이념을 포괄하고 있다. 통일된 한국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은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인간 존엄, 공공질서, 자유사회에서의 절차, 합리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²³⁾

더욱이 통일사회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 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말한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사회의 융화와 단결을 추구하려면 민주사회의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이 민주적 공동체를 가꾸는 데 핵심이 되며 통일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임을 인식하여 이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²⁴⁾ 따라서 통일문제와 결부 지어 통일의 기본방향이나 방법 등을 대상으로 삼아 직접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교육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을 체득케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의 전통적 민족공동체 의식은 우리 민족을 한 민족으로 통합시키려는 토대가 되지만,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북한 동포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필요성이 약화될 때 그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전후 세대들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일방적이고 주입적인 통일의 당위성교육이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면화하고 가치화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화의 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남북한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민족 이질화와 상호 불신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23) 한만길(1994), “학교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모색”, 『통일문제연구 94년 겨울호(통권 제22호)』, 평화문제연구소, pp. 178-179.

24) 통일원(1995), 전제서, p.137.

이질화와 불신은 종래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지속하는 한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서로가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대결의 논리에서 화합의 논리로 전환하여 남북한이 모두 함께 민족통합을 지향하면서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유구한 역사의 공동문화유산을 계승함과 동시에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등에서의 잦은 교류를 통해 통일문화를 창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²⁵⁾ 민족공동체 교육은 이질화된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민족이 동질성을 가지고 화합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민족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민족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물리적인 통합은 남북의 이질성을 감안해 볼 때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후유증도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 이전 단계에서부터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나간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²⁶⁾ 이러한 민족공동체 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민족주의 이념은 민족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립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 교육은 북한에 대한 이해 교육, 남북한간의 적대감 해소와 신뢰감 형성, 민족의 자존과 주체성의 함양, 공동체적 삶의 형성과 같은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 적극적인 평화 의식을 계발하는 교육

평화교육은 남북한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통일된 한국사회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평화 정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념이다. 무엇보다도 분단구조하에서 남북한간에 심화되어온 갈등과 적대감, 적개심을 해소하려면 이해와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내의 또 다른 폭력과 전쟁을 방지하려면 국내외적인 평화 저해요인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필요한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교육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창조적 과정임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되어

25) 최인화(1993), 전제서, p.385.

26) 통일원(1995), 전제서, p.125.

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구조'로서의 평화를 다지기 위한 통일교육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민족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내용으로서의 평화'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냉전시대를 체험한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적색 공포증을 통일 후계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비판적 성찰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주입하려는 전통적 교육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평화의식을 계발하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²⁷⁾

2. 민족 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의 내용

교육은 사람의 인식을 변화 발전시키고 인성을 함양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교육의 특성은 통일에 대한 준비와, 교육 통합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할 점을 남겨 준다.

첫째,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이나 통일 이후의 교육이 민족의 화합과 통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점이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 속에서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북 주민들의 인식과 생활 습관, 문화의 차이는 상당하다. 이러한 차이를 딛고 민족이 화합하고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남북 주민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함께 민족 공동의 문화를 일구어 나아가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교육이 이러한 일에서 중요한 몫을 할 것임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이나 통일 이후의 교육 통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형성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통일 이후의 교육 통합과 통일 이전의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이 하나의 연속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의 인식과 인성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급격히 변화 발전할 수가 없다.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하루아침에 급격한 교육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남북의 교육자와 학생 모두 급격

27) 추병완(1997), 전제서, p.33.

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것이며, 이것은 엄청난 혼란과 교육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낳을 것이다. 이는 교육의 부재(不在)이며 엄청난 교육비용의 낭비이며, 교육이 민족의 통합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중대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막고 민족의 통합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교육 통합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 통일을 위한 교육과정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의 교육 통합에서 교육제도와 행정 체계의 통합보다, 민족 통합을 위한 교육 과정과 내용의 마련과 실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 십년간 서로 다른 교육 제도, 교육 과정,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해 온 남북의 교육을, 제도나 행정을 앞세워 통합하고자 했을 때는 기존 남북의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저항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의 기존 교육자를 그냥 둔 채 그러한 개혁을 앞세워 새로운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교육자의 인식과 역량의 문제로 인하여, 일방에서 교육자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기하고자 할 때는, 당해 지역의 교육자의 저항과 피교육자의 거부감으로 교육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의 교육 통합은 기존의 교육제도와 과정, 기존의 교육자를 그대로 인정하고 활용하면서, 민족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마련해 상호의 교육과정 속에 넣어 교육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서로간의 인식과 교육 역량의 차이를 해소해 가는 과정을 밟은 후 교육제도와 행정 체계를 통합해 나가야 한다.²⁸⁾

끝으로 통일 후 민족국가의 번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미래 사회는 창의적인 인간을 요구한다. 피교육자의 창의력을 풍부하게 발전시킬 때 통일된 민족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통일 후 나타날 갖가지 문제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고 이를 솔선해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의 육성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8) 이장원(1997),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추구하는 교육통합", 「직녀에게」 8월호,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 pp.22-25.

3. 통일교육의 새로운 교수방법

변화하는 시대의 통일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열린' 교육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열린' 교육방법이란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원리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획일적인 이념이나 사상을 주입함으로써 정형화된 의식과 행동을 심어주도록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원리에 위배된다. 민주주의 교육원리에 기초한 '열린' 교육은 변화하는 사태에 대하여 열려져 있는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즉 다양한 주장과 개방적인 논의를 허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문제 사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열린 수업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²⁹⁾

통일교육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는 도덕, 윤리과를 비롯한 관련 교과목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업의 과정에서 어떠한 모형을 선택하여 진행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 학생들의 특성이나 환경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수업 모형의 선택은 수업의 효과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나 가치 문제를 다루는 수업을 위한 모형들은 모두 통일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업 모형들은 지식, 가치관, 판단력, 의지나 동기, 행동 성향 등을 기르는데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수업 모형들의 접근 방법은 크게,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수업을 이끄는 '주입식 방법',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키고 발표를 통해 학생들을 수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탐구식 방법', 학생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통일 문제를 절실하게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행동 성향을 기르려는 '체험식 방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덕, 윤리과 교사용 지도서, 통일 교육 지도 자료, 통일 교육 관련 연구물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체적인 통일 교육 수업 모형으로는 강의식 수업, 시청각 매체

29)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pp.447-448.

활용 수업, 집단 탐구 수업, 토의 수업, 개념 수업, 비교 분석 수업, 가치 갈등 수업, 시사 자료 활용(NIE)수업, 가상 현실 체험 학습, 현장 체험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집단 탐구 수업, 개념 수업, 비교 분석 수업은 [통일 교육 지도 자료]에 이미 소개된 바 있고, 가치 갈등 수업 모형 또한 도덕 윤리과 수업 모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러한 수업 모형들과 함께 통일 교육의 열린교육 방법으로 적용해 볼 만한 수업 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청각 매체 활용 수업

이 수업 방법은 통일 교육 내용을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북한 관련 정보들을 주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얻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매우 적절하고, 또 필요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시청각 매체를 통해 현실적인 학습 경험을 거의 무한정 확대시킬 수 있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³⁰⁾

시청각 매체 활용 수업을 위한 자료의 제작 및 수업 전개 과정의 유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각 자료는 학교급별 수준에 맞게 제작하되, 가능하면 단위 수업 시간에 활용되도록 소주제로 분류하여 대략 20분 이내의 자료로 편집하고, 중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선하고, 명료하게 제시한다.

둘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참신하고 현실성 있는 내용을 선정, 구성한다. 선동적이고 홍보성이 강한 자료는 제외시킨다.

셋째, 자료의 내용에 따라 수업에서의 적용 시기를 달리한다. 즉,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내용, 기본 원리나 개념을 이해시키는 내용,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수업 전반부에 활용하고, 본시 학습 내용을 정리하거나 보충 심화할 수 있는 내용, 결의나 다짐하는 내용 등은 후반부에 활용하고, 자료 화면이나 예시 설명 등은 필요한 경우에 어느 단계에서든 활용한다.

30) 정규원(1992), "통일교육의 발전적 수업전개방법", 「도덕국민윤리과교육 제3호」, 한국도덕국민윤리교육학회, p.248.

넷째, 단지 시청각 매체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매체 활용 전 후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 목표를 확인하거나 내용을 보는 비판적인 관점을 논의하고 내용을 평가하는 등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학교의 수업 시간에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정에서 각자 시청하고 그 결과를 소재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2) 토의 수업

토의 수업은 통일교육에서 가장 많이 제안되고 있는 수업 모형으로, 어떤 정해진 한 가지 절차만으로 한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토의식 수업이란 대화식 수업, 토론식 수업, 논의식 수업 등으로 불리는 일단의 모든 수업 과정 곧, 교사와 학생간의 일문 일답식 수업, 집단 토의 수업, 문제에 대한 판단과 대안 찾기 수업, 찬반되는 문제에 대한 대립 토의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의미이다.

토의 수업을 전개함에 있어 학습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토의를 통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집단적인 토의를 통하여 수업의 주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주제에 알맞은 학습자료를 학생들이 스스로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탐독한 다음 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북한의 현실문제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전개할 수도 있다.³¹⁾

통일교육에 적용되는 토의 수업은 일반적으로 문제의 인식 → 문제의 탐구 → 문제의 토의 → 토의의 평가 및 신념화의 과정으로 진행된다.³²⁾

첫째, 문제의 인식 단계에서는 그 시간에 학습할 문제, 목표 등을 알려준다. 학습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학습할 내용과 방법의 추측이 가능하며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시사성 있는 자료나 생활 경험 자료를 통해서 학습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31) 한만길(1997), 전제서, p.448.

32) 박종태(1992), “통일안보교육의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49.

둘째, 문제의 탐구 단계에서는 개인 또는 소집단별로 학습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통일 교육의 내용은 시사성이 강하므로 교과서의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도록 촉구한다.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고려해 보도록 한다. 탐구의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학생들 스스로 활동하도록 하고 교사는 필요한 도움만을 제공하도록 한다. 자료를 수업 시간에 찾는 것이 무리인 경우에는 미리 과제로 제시하여 학습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탐구해 보도록 한다.

셋째, 토의를 통해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탐구 과정에서 얻은 학습 내용이나 근거들을 집단적 토의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관점과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오류나 증거, 다른 입장들을 알 수 있게 되며,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 방식이나 해결 방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이 단계에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발문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의 토의 과정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추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하는 질문을 하거나 다른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촉구한다.

넷째, 이제까지 이루어진 탐구 과정과 내용을 정리, 평가하고 학습 내용을 자신의 신념으로 연결짓는 수업의 마무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기록해 보게 할 수도 있다.

(3) 시사 자료 활용 수업³³⁾

시사 자료 활용 수업이란 주로 신문의 통일교육관련 기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NIE(newspaper in education) 방법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한반도 상황 그리고 변화하는 남북 관계의 상황 속에서

33) 류제경(1996), 「시사자료(NIE)를 활용한 통일안보교육방법」, 교육부, 「통일안보의 균형적 시각정립을 위한 효율적인 통일교육방안 모색」, 전라남도교육청, pp.111-119.

이루어져야 하는 통일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내용과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시사 자료 활용 수업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생활, 북한 학생들의 생활, 가족 관계 등과 같은 소재들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신문에 보도되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 분단에서 오는 사회, 경제, 문화적 손실과 낭비, 인간적인 고통 등에 관한 내용이나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 통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신문에 실리곤 하는데, 이들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 자료를 활용한 수업은 토의식으로 진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일정한 학습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학생들이 수집한 다음, 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신문 기사가 교육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사 자료를 수용하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통일 교육을 위한 시사 자료 활용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여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영역별 혹은 주제별-예컨대, 정치, 사회, 문화, 언어, 생활, 풍습 등-로 범주화한다.

둘째, 자료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연간 계획서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셋째, 전체, 집단별, 개인별로 수집 과제를 부여한다. 이 때 시사기록장 또는 스크랩북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수업 시간에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

(4) 가상현실 체험학습

가상현실 체험학습(simulation learning)이란 현실적으로 체험이 불가능한 학습 내용을 모의 실험 형태로 체험하게 하는 수업으로 컴퓨터 기법을 응용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습법은 북한에 대한 이해를 이론적인 학습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직면하는 것처럼 설정하여 그들의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발견하게 하려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생생한 1차 자료가 많이 필요하며, 이를 교육적으로 재구성하는 교육적인 상상력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통일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을 모의 상황으로 설정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업 과정에서는 역할 놀이나 조별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수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황 설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의 선입관을 배제하고, 학생들의 상상력과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자기 표현을 격려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5) 체험 학습

체험 학습은 수업 시간을 할애하거나 특별 활동 및 단체 수련 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강좌나 세미나에 참여하여 토론회를 갖도록 한다. 통일 교육과 관련된 현장을 체험하거나 '북한돕기운동'과 같은 실천적인 활동을 통하여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체험의 교육적 효과는 두말 할 나위 없이 크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개발하고, 답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체험을 통한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통일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통일은 우리가 실현해야 할 민족 최대의 과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해서는 안 될 과오에 의해 쓰라린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다. 분단된 남북한의 통일도 국내외의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철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비하는 국민 개개인의 사명 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남북한의 통일을 촉진하고 대비하기 위해, 그 이후의 문제점까지도 고려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건전한 통일관과 통일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통일교육이다.

그런데 기존의 통일교육은 이념과 체제능력을 대상으로 하여 남북한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통일교육은 단순한 지리적·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마음의 통합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는 통일교육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지 못했다.

통일교육은 기존의 냉전 구조가 전이(轉移)된 통일환경에 따라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고, 교수·학습에도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우선 동서 냉전 구조가 붕괴되고 소련이 해체되었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논리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고 있다. 한반도의 주변 정세도 이념적 대립보다는 각국의 이익에 따라 대립과 협상이 이루어지고 불안정한 세력균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일교육도 질적인 변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윤리 담당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해 보았다. 그 결과 대다수의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이 통일에 대한 신념도 강하고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명료한 지도방법을 지니지 못한 채

구태의연한 사실 전달이나 개념 설명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업 방안의 모색과 수업자료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새로운 통일교육은 불신과 대립의 냉전 구조 속에서 반세기를 살아온 우리 민족 전체의 마음속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탄력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으로서 ①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 ② 민주 시민을 기르는 교육, ③ 민족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교육, ④ 적극적인 평화 의식을 계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 부응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시청각 매체 활용 수업, 토의 수업, 시사 자료 활용 수업, 가상현실 체험학습, 현장 체험 학습 등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실행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학교 통일교육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실질적인 마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과급 효과가 큰 확실한 교육적 투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통일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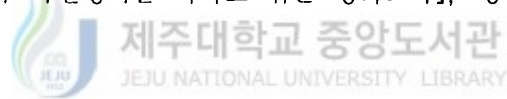


참고문헌

- 강광식 외 (1994),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고성호(1996),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2), 『중학교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7), 『도덕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3), 『통일교육 지도자료』
- 권세기(1993),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정치교육』, 한국정치학회 제3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 김도태·이경화(1997), 『통일교육 개선방향 :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집』 제6권 제1호.
- 김영수(1995),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동아시아연구논총』 제5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류제경(1996), 『시사자료(NIE)를 활용한 통일안보교육방법』, 교육부, 『통일안보의 균형적 시각정립을 위한 효율적인 통일교육방안 모색』.
- 박영호(1994), 『통일 이후 국민통합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박종태(1992), 『통일안보교육의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백종억(1992),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 방향 모색』,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제4권1호.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1995),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모형 개발』.
- 서진완(1995), 『통일대비교육을 위한 정보통신매체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모색』,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VI; 통일환경 및 통일교육 분야』.

- 신상조(1993), 「통일교육의 현주소」, 『교육개발』 85호, 한국교육개발원.
- 양영식(1998), 「대북 정책의 방향: 추진방향과 과제」, 『오늘의 북한과 민족 통일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세미나발표자료.
- 오인탁(1997), 「통일교육의 방향」, 이영선 편,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수총서3 「통일
준비」, 오름사.
- 윤건영(1995), 「통일교육의 교수학습준거 설정에 관한 연구」,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VI; 통일환경 및 통일교육 분야』.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1997),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오름사.
- 이돈희 외(1996), 「학교 통일교육 자료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희(1996),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교육방안의 모색」,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II;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통일원.
- 이상열(1992), 「평화교육의 철학과 실천 방법」, 최상용(편), 『현대평화사상의 이
해』, 한길사.
- 21세기 위원회(1992),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사.
- 정규원(1992), 「통일교육의 발전적 수업전개 방향」, 한국도덕국민윤리학회, 『도덕
국민윤리과교육』 제3호.
- 정용석(1994), 「통일교육의 효과적 실시 방법」, 『통일 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
방향』, 통일원.
- 최 성(1997), 「김대중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추진방향」, 현대경제사회
연구원, 『통일경제』 2월호.
- 최인화(1993),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 통일원, 『통일문제
연구』 제3권1호.
- 추병완(1997),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통일교육·홍보(V)』,
통일원.
- 통일원(1995),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통일원.
- 통일원(1997), 「통일교육지원법 설명자료」, 통일원.
-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 모임(1997), 『직녀에게』 8월호.

- 평화문제연구소(1994), 『변화된 세계 새로운 통일론』, 평화문제연구소.
- 평화문제연구소(1997), 『통일문제연구』 제9권1호(통권 제27호), 평화문제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1991),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및 통합에 관한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4),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4),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4),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6), 『학교통일교육자료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1994), 『학교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 모색』,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 연구』 94년 겨울호(통권 제22호).
- 한만길(1994), 『남북한 교육의 동질성 추구를 위한 방향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1995),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교사들의 통일교육관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1996),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과 과제』.
- 한만길(1996), 『학교 통일교육 자료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준상(1993), 『남북 국민정서를 하나로 묶는 평화교육』,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Abstract)

**Thesis on Effective Ways of Teaching
'Reunification of Korea Peninsular'**

Kang, Jeong-Yoon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Joon

Reunification of Korea peninsular is the most important task that we have to do. And its teaching is one of processes which achieve the reunification, so that we may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peninsular. At least we have lived with coming to a consent that we should do the reunification and its teaching. But there has been a big confusion and conflict on how to reach the reunification and teach i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domestically. As a result, this has led us to make a big mistake; that is, this has resulted in delaying the reunification. More than anything else, the different point of view on teaching the reunification domestically have made us confused at setting up the way of teaching the reunification. Accordingly this has been a basic reason to cause to reduce the efficacy on teaching the reunification.

The reason why we have to concern about teaching the reunification is that it brings the strong love of people and viewpoint of the reunification to the new generations which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the reunifica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for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

Nevertheless, teaching the reunification hasn't planted firmly, especially in secondary schools partly because of the test-centered educational circumstances under which students have been concerned only about passing exams, and uninterested in and bored of learning about the reunifica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eaching the reunification in schools has been done in the old way which couldn't deal with the rapid change of the reunification circumstances

This study is to seek for the effective way of teaching the reunification in secondary schools based on the changeable circumstances of the reunification.

The new way of teaching the reunification is to be so active and flexible that it can get rid of the barrier with which we Koreans have lived under the circumstances of cold war having distrust and confrontation. On this premise, this study shows the right way of teaching the reunification we intend to do: ① Education of forming a right point of view on the reunification ② Education of bringing up democratic citizen ③ Education of forming the ethnic community consciousness ④ Education of developing active consciousness of peace. And it shows the new methodology of teaching the reunification in which there are multimedia teaching method, teaching method of discussion learning, that of using current news materials, simulation learning, field experience learning and shows the practical ways that can be applied in schools.

Top of all the things, teaching the reunification in schools should be the best investment on education which will bring the most effective and practical result by which we Koreans can feel the reunification inwardly.

<부록> 제주도 도덕·윤리교사들의 통일의식 설문조사

존경하는 선생님께

저는 남원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 국민윤리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강정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윤리 담당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느끼는 통일교육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미약하나마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러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꺼이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있으면 그냥 빈칸으로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5월

통일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

1. 선생님께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상관없다
 - ③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
2. 통일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에 ①을 택하신 경우)
 - ① 한 핏줄, 한 민족이므로
 - ② 민족 경제적으로 이익이므로
 - ③ 민족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 ④ 개인적으로 통일이 이익이 되므로
 - ⑤ 기타
3. 선생님께서는 통일이 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5년내
 - ② 5년~10년
 - ③ 15년~20년
 - ④ 30년 이후
 - ⑤ 안될 것이다

10. 담당 교과 영역에서 통일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적절하지 못해
 - ② 교육자료가 없거나 부실해서
 - ③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해 통일교육이 중시되지 않기 때문
 - ④ 수업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시간을 충분하게 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 ⑤ 수업에서 통일교육을 할 때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좋지 않아서
11. 교과 수업에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칠 때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 ①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 ② 학생 주도의 발표/토의식 수업
 - ③ (1)과 (2)를 절충한 방식의 수업 ④ 역할극 수업
 - ⑤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 ⑥ 현장 체험 학습
12. 선생님은 북한에 대한 정보(지식)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 ① 신문 ② TV ③ 라디오 ④ 잡지
 - ⑤ 전문서적 ⑥ 기타()
13. 통일교육을 할 때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 ① 반공 안보 의식의 함양 ②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 ③ 민족 자주 의식의 함양 ④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
 - 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함양
14. 6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통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5. 위 질문 외에 통일 또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있으시면 써 주십시오.